

히비 엇갈린 '게임 3N'... 넥슨, 신작 14종으로 성장 주도

넥슨, 장기 흥행장 성장 견고
엔씨·넷마블, 실적 뒷걸음질
지스타 2018서 신작 봇물

게임업계 '3N'으로 불리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선두3사의 3·4분기 실적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실적이 뒷걸음친 반면, 넥슨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나며 히비가 교차했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 국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작 출시가 지연된 탓이었다. 게임사들은 내년 본격적으로 '리니지', '블소&레볼루션' 등 유명 지식재산권(IP) 기반 신작들을 출시해 실적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연결 기준으로 넥슨은 3·4분기 매출 6961억원으로 15%, 영업이익은 2381억원으로 4% 늘었다.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장기 흥행작의 견고한 성장 덕이다. 반면,



이정현 넥슨 대표가 '지스타2018 프리뷰'에서 소개할 신작을 발표하고 있다.

넥슨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각각 39.8%, 58% 줄어들며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실적발표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 국내 환경 변화에 따라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업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3N의 대작들은 대부분 내년 출시로 미뤄졌다. 넷마블은 올해 출시 예정이던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과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을 주인공을 내세운 모바일 게임인 'BTS월드'의 출시를 내년으로

미뤘다.

엔씨소프트도 지난해 출시한 '리니지M' 이후 눈에 띄는 신작이 없는 상태다. 실적 성장을 이룬 넥슨 역시 지난해 15종의 게임을 출시했지만, 올해는 9종의 게임을 출시하는 데 머물렀다. 새 성장 동력을 이룰 신작이 절실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게임사들은 하반기부터 신작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3분기 유일하게 호실적을 기록한 넥슨은 당장 15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는 열리는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8'에서 14종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과거 향수를 불러오는 PC온라인 게임들이 대거 모바일게임으로 부활할 전망이다. 1996년 출시한 넥슨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를 비롯해 '크레이지 아케이드', '테일즈위버', '마비노기' 등이 배일을 벗는다.

이밖에 자체 개발적인 해양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네 개의탑' 등도 선보인다. 자체 IP 게임인 모바일다중접속역할

수행게임(MMORPG) '트라하'도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도 신작 출시에 전념할 계획이다. 넷마블은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세븐나이츠2',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등 대형 IP 모바일 게임 3종과 'A3 스틸얼라이브' 등을 지스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이었던 'BTS 월드'는 내년 1분기 출시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는 기존 흥행작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며 신작 반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중 '리니지2M'을 시작으로 ▲아이온2 ▲블레이드&소울2 ▲블레이드&소울M ▲블레이드&소울S 등 모바일게임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대형 신작들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출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내년부터는 신작 출시에 의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코웨이 '2019 CES' 앞두고 4개 제품 '혁신상'

코웨이는 내년 1월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2019 CES(소비자가전쇼)'를 앞두고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16년 CES에 처음 참가한 이후 4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디자인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번에 CES 혁신상을 수상한 코웨이 제품은 ▲시루직수 정수기(CHP-7300R) ▲시루스탠드 정수기(CHP-5700R) ▲킹스맨 안마의자(MC-S01) ▲바다리프레서 연수기 등 총 4개 제품이다.

시루직수 정수기와 시루스탠드 정수기는 기존 CIROO(Coway Intensive Reverse Osmosis) 필터보다 면적과 정수량

을 각각 6배, 30배 높은 'CIROO 2.0 필터'를 탑재해 직수 방식을 구현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RO 멤브레인 필터를 장착한 정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탱크 없이 직수가 가능하도록 한 혁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킹스맨 안마의자는 한방 의학을 접목한 혁신 제품으로 코웨이가 자체 개발한 온열테라피를 이용해 혈자리 온열 안마기능을 제공한다.

바다리프레서 연수기는 연수기와 라인사워 시스템이 합쳐진 아이디어 제품이다. 호수 라인을 내장형으로 설계해 깔끔한 외관을 구현했고, 연수 농도를 사용자의 컨디션과 외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왼쪽)이 한국협동조합학회 최경식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한국협동조합학회 단체회원 가입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협동조합학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이 학회 부회장으로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

협동조합에 관한 이론과 실제 연구를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된 한국협동조합학회는 국내 대학교수, 연구원, 협동조합 임직원 등 300여명이 소속된 국내 최고 권위의 협동조합 학술단체이다. 학회에는 단체회원으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

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학회 부회장으로 위촉된 이원섭 본부장은 "이번 중기중앙회의 학회 가입을 계기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대기업과의 불공정 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진 장점과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협동조합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 미세먼지 잡는 '생활 가전 3종' 인기

대우위니아 '공기청정기'

실시간 공기질 체크로 자동정화

SK매직 '플렉스 하이브리드 레인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 NO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최소한의 기름으로 맛있는 튀김요리

한파와 미세먼지가 함께 찾아오면서 환기에 대한 걱정 없이 실내 공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전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고 북서풍이 부는 11월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극심해지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과 '한때 나쁨'을 부지런히 오갔다. 국내 오염물질과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11월 역시 전날에 이어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중국 정부는 석탄 공장 가동 중단 정책을 작년 대비 다소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옮겨올 한국의 미세먼지는 사상 최악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일은 한파, 사일은 미세먼지라는 뜻의 신조어 '삼한사미'는 올해도 여지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비자들은 겨울철 한파와 미세먼지 공습에 대비해 실내에서나마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생활가전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전 업계도 이러한 소비 흐름에 맞춰 공기 질 향상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실시간 공기 상태 감지... '위니아 공기청정기'

지난달 말 대우위니아는 공기청정기 신제품 4종을 공개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제품의 얼굴인 상단부에 있다.

공기 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우위니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공기 청정기에 디지털 센서를 적용했다. 토출부 상단에 위치한 전면 발광다이오드(LED)로 현재 실내 공



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공기의 상태를 체크해 자동으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준다.

섬세한 'PM0.5 디지털 공기청정 센서'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아세트알데히드 등의 각종 유해냄새를 세밀하게 감지한다. 이 센서가 오염된 실내공기를 감지하면 공기청정기 전면과 후면으로 공기 흡입 후 3중 필터를 거쳐 깨끗한 공기가 상부 토출구를 통해 360도 전 방향으로 배출된다. 필터를 통해 극초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각종 생활악취 및 새집증후군 유발물질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기관지가 민감한 이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다.

◆유해가스 없는 SK매직 '플렉스 하이브리드 레인지'

가스레인지 사용 시 유해가스 배출에도 미세먼지 탓에 환기가 어렵다. 이에 소비자들은 음식 조리 시 유해가스 발생이 없는 전기레인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전용 용기 사용이 필수지만 화재의 위험이 덜한 인덕션과 사



용 용기 제한이 없지만 비교적 잔열이 오래 남는 하이라이트를 두고 고민한다.

SK매직 '플렉스 하이브리드 체인지'는 두 개의 인덕션과 하나의 하이라이트 화구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조리 시간 단축을 위해 3구 모두 동시 사용이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화력이 자동 구성돼 버너의 사용에 따라 화력이 제한되어 작동한다. 상판에 돌출부가 없어 행주만으로도 간단하고 편리한 청소가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튀김 조리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기름이 많이 필요한 튀김 요리를 할 경우 유해물질이 평상시 주택 농도보다 약 2배 이상 발생한다. 이에 자취생 및 주부들의 주방 필수품으로 등극한 에어프라이어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는 필립스만의 터보스타 기술로 최소한의 기름을 사용한 튀김 요리가 가능한 제품이다. 기존 튀김기보다 냄새 배출이 적을 뿐 아니라 세척이 간편해 평소 튀김 요리를 하기 부담스러웠던 자취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음식이 겹쳐져 있어도 뒤집을 필요 없이 균일하게 튀겨주며 예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빠르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단순히 튀김 요리뿐만 아니라 베이킹과 구이 요리까지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유례없는 한파 기록이 갱신되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악영향까지 겹쳐 쾌적한 실내생활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어떠한 질과 크기의 미세먼지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